東亞日報
THE DONG-A ILBO (THE Oriental Daily News)
(一) 第四千一百七十七號 昭和十六年九月十三日 (西紀一九四六年一月九日第三種郵便物認可) 第四千一百七十六號

社說

大西洋憲章과 言論의自由

人類의幸福을 破壞하고 世界平和를 擾亂시키는 日獨伊軍國主義의 典型的特色은 言論의自由와 出版의自由를 拒否하는데있고 이에反하야 眞正한 民主主義의 基本條件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言論의自由와 出版의自由에있다는 것은 再論할 餘地가없는 確然한公理이다。그리하야 나치獨逸의 히틀러가 「체코」 被攻을 機會로 席捲하야 所謂佐略의進展을 始作하자 平和愛好國과 世界弱少民族들은 國際「파씨스트」의不安과 恐怖와 武壓에 눌리어서 自由民으로서의 人權主張과 弱少民族으로서의 自決原則은 完全히 默殺되지안나하는 感覺과 失望을 느끼게하였다。이에있어서 平和愛好國인同時에 人類幸福의 希望을 걋게하겠다는 正義의使命을 띨만 美、英兩國은 먼저 對獨宣戰後 「一九四一年八月十二日 大西洋洋上會談에서 英처칠首相과 美루스벨트大統領의 美英共同宣言이 바로 이 大西洋憲章의 出發이다。

二

大西洋憲章精神은 各國民의 「自由意思表明」에對한 絕對的確利를認定한것이다。領土變更이나 政權選擇에있어서 모두 그國民의自由選擇權을承認한것은 政治思想으로보아서 國際民主主義의世界化를 宣言한것이요 歷史階段으로보아서 弱少民族의自由解放을 世界人類에公約하엿다는것이다。이러한性格을 가진 大西洋憲章이야말로 二次大戰初期에있어서 期的意義가있엇고 뿐만 니라 國際 「파씨슴」 를 倒壞케한 正義의勝勝을 約하엿든것이라고아니할수 없다。侵略强壓下에 一時呻吟를 「三千萬文化民族에게는 새로히 「카이로」 公約에依하야 「포모사島」 를 國際的으로約束함으로써 大西洋憲章精神과 戰爭目的을確保하엿다고우리는 期待하여왓다

그러하야 이번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美英蘇三國外相會議에서 新歷史의創造를推進시킬 重大한 政策을 決定하였다고 全人類는 歡呼하엿을것이다。

大西洋憲章 「카이로」 「포쓰담」 兩會議에서 다시 한번 確認된 大西洋憲章의 基本精神은 무엇보다도 言論의自由에있다는 것은 再論할 餘地가없는 確然한公理이다。그리하야 나치獨逸의 히틀러가 「체코」 被攻을 機會로 席捲하자 所謂佐略의進展을 始作하자 平和愛好國과 世界弱少民族들은 國際「파씨스트」의不安과 恐怖와 武壓에 눌리어서 自由民으로서의 人權主張과 弱少民族으로서의 自決原則은 完全히 默殺되지안나하는 感覺과 失望을 느끼게하였다。이에있어서 平和愛好國인同時에 人類幸福의 希望을 걋게하겠다는 正義의使命을 띨만 美、英兩國은 먼저 對獨宣戰後 「一九四一年八月十二日 大西洋洋上會談에서 英처칠首相과 美루스벨트大統領의 美英共同宣言이 바로 이 大西洋憲章의 出發이다。

二

大西洋憲章精神은 各國民의 「自由意思表明」에對한 絕對的確利를認定한것이다。領土變更이나 政權選擇에있어서 모두 그國民의自由選擇權을承認한것은 政治思想으로보아서 國際民主主義의世界化를 宣言한것이요 歷史階段으로보아서 弱少民族의自由解放을 世界人類에公約하엿다는것이다。이러한性格을 가진 大西洋憲章이야말로 二次大戰初期에있어서 期的意義가있엇고 뿐만 니라 國際 「파씨슴」 를 倒壞케한 正義의勝勝을 約하엿든것이라고아니할수 없다。侵略强壓下에 一時呻吟를 「三千萬文化民族에게는 새로히 「카이로」 公約에依하야 「포쓰담」 를 國際的으로約束함으로써 大西洋憲章精神과 戰爭目的을確保하엿다고우리는 期待하여왓다

그러하야 이번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美英蘇三國外相會議에서 新歷史의創造를推進시킬 重大한 政策을 決定하였다고 全人類는 歡呼하엿을것이다。

大西洋憲章 「카이로」 「포쓰담」 兩會議에서 다시 한번 確認된 大西洋憲章의 基本精神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言論의自由에있다는 것은 再論할 餘地가없는 確然한公理이다。그리하야 나치獨逸의 히틀러가 「체코」 被攻을 機會로 席捲하자 所謂佐略의進展을 始作하자 平和愛好國과 世界弱少民族들은 國際「파씨스트」의不安과 恐怖와 武壓에 눌리어서 自由民으로서의 人權主張과 弱少民族으로서의 自決原則은 完全히 默殺되지안나하는 感覺과 失望을 느끼게하였다。이에있어서 平和愛好國인同時에 人類幸福의 希望을 걋게하겠다는 正義의使命을 띨만 美、英兩國은 먼저 對獨宣戰後 「一九四一年八月十二日 大西洋洋上會談에서 英처칠首相과 美루스벨트大統領의 美英共同宣言이 바로 이 大西洋憲章의 出發이다。

自律政府樹立渴望

民族思想의統一로鞏固

地方人士의動向

李博士의南朝鮮視察談

李承晩博士는十一日正午 民主議院에서 記者團과會見 하고英蘇共委 다시會議에再參席하야經 驗談으로써待하고있다고 리고自律的政府樹立에對한 民望이 노픈모양이며 나도이點에對하야생각한點은 있으나 發表는아직못하겟 다 그러나同胞들은이機會 에自己의意思를서로 矛盾 되지안케發表함이조흘것이 다하ㅡ지中將과도會見하 엿는데 「韓人들이行動을愼 重히하여서獨立에對한 準備가를바래고있으며 休會에對한對策도있으나蘇側委 員이退京한데에對한美國人 들의輿論을기다리고있다」 고말하였다 地方에巡廻한 所感을말하면希望以上의民 族思想統一이되여있으며特 로라도말이政府가樹立되기 를渴望하고있음을보고 참 次게생각하였다 巡廻豫定 地로서아직못간곳은數日內 로다시갈豫定이다 【寫眞은 李博士】

다시會議에再參席하야經 하는수가만흐니 共委도續 開될것으로期待하고있다고 리고自律的政府樹立에對한 民望이 노픈모양이며 나도이點에對하야생각한點은 있으나 發表는아직못하겟 다 그러나同胞들은이機會 에自己의意思를서로 矛盾 되지안케發表함이조흘것이 다하ㅡ지中將과도會見하 엿는데 「韓人들이行動을愼 重히하여서獨立에對한 準備가를바래고있으며 休會에對한對策도있으나蘇側委 員이退京한데에對한美國人 들의輿論을기다리고있다」 고말하였다 地方에巡廻한 所感을말하면希望以上의民 族思想統一이되여있으며特 로라도말이政府가樹立되기 를渴望하고있음을보고 참 次게생각하였다 巡廻豫定 地로서아직못간곳은數日內 로다시갈豫定이다 【寫眞은 李博士】

各方面人士의熱議

美蘇共委休會의善處策

南朝鮮各地를 巡回中이엇든 美蘇共委 는十一日午前十 時四十分頃부터約一時間에 걸쳐徐相莊에서 「꿀뻘러」 大佐와會談한다음 民主議 院會議에出席하야 에見聞한地方事情과 하ㅡ지中將과의會談經過를報告 하였다

지난十日午前中에 다음과 같은聲明을發表하엿다

現段階의韓國民族은 眞正한民主的인自律的獨立政府의急速樹立과 民族의生命線을 四分五裂시키는 三十八度線의撤廢를要求하는바 至極하다 우리는大乘的民族團結로써 國內外事態에對應하야 李承晩博士와 金九主席을 中心으로 獨立政府樹立에 一路邁進할것을 玆에 聲明한다

大韓獨立促成全國青年總聯盟

國民聯盟緊急會議

國民聯盟에서는十一日午前에 緊急會議를 開催하고 美蘇共委에 對한 態度와 今後對策을討議하였다

民族叛逆者를 肅淸하자

獨立促成國民會聲明

伊太利內閣은 伊太利의太子 「암바ㅡ드」 가 六月二日까지 王位에在位할것을 承認하였는데 六月二日伊太利에서는 王政繼續與否의 人民投票를 行하리라한다 그러고 伊太利內閣은 「암바ㅡ드」 가 布告에 依하야 承認하였다라고 發表하였다

大韓獨立促成國民會에서는 左記綱領과 같은 政府樹立에對한 基本方針을 決定하고 各界各層의 總意를 集結하야 强力한 統一戰線을 結成하기로 決議하였다

一、三八線障壁을 固守하야 우리의 地域的 또는 民族的 分裂을 行하려는者는 侵略者로 規定하자

一、民族的 總意로써 臨時政府를 우리의 손으로써 樹立하자

一、祖國을 蹂躪의 一聯邦으로 맨드라는 叛逆者를 肅淸하고 우리에게 加하는者는 우리의 敵으로 規定하자

一、우리는 他力의 依存을 排除하고 自力의 獨立國家를 建設하자

一、祖國을 蹂躪의 一聯邦으로 맨드라는 叛逆者를 肅淸하고 우리에게 加하는者는 우리의 敵으로 規定하자

一、三八線障壁을 固守하야 우리의 地域的 또는 民族的 分裂을 行하려는者는 侵略者로 規定하자

一、民族的 總意로써 臨時政府를 우리의 손으로써 樹立하자

外資의侵入을防止

新韓公社令에關한質疑問答

改定된新韓公社法令에對하야 法務局當局은 左記와같은 問答을하였다

問 法令八十號一條에보면 軍政廳이解散되면 新韓公社는朝鮮政府의責任에 歸한다하였는데 그責任은 어떤意味의責任인가 이것은 同會社의全權利를意味한다고하기는어려울것같은데 參考로 會社令第一條에있어서의責任은 朝鮮政府로 移管한다는뜻인가

答 一條에있어서의責任은 同會社의全權利를 意味한다고하기는어려울것같은데 參考로 會社令第一條에있어서의責任은 朝鮮政府로 移管한다는뜻인가

四相會議失敗해도

【羅馬十一日發AP合同】 「트루맨」 美大統領은 新聞記者會見席上에서巴里四國外相會議가 失敗하였다고하드라도美國의對英蘇外交政策에는 變化가없을것이다또그러한變化로因하야美英關係를緊密化할可能性이있다는報道는 誤傳이라고 强調하였다 그러고四相會議完全失敗에 關해서 「트루맨」 大統領은 朝鮮政府의責任에 關한 聲明을 發表하리라고말하였다

歐洲平和會議

期日尙未決定

【巴里十一日發AP合同】 確報에依하면 蘇聯이歐洲平和會議開始以前에四個國完全合議가 必要하다는것을 主張하는것은 他聯合國의意見을 無視하는것이라고하야 英側은 四相會議에서 非難하였다고하는데 그蘇聯側은 이에對하야 英美側의主張은 結局世界를 二陣營으로分裂하자는것이라고反駁하였다한다 그러고 美英報道에依하면 「번즈」 氏가 歐洲平和會議開催期日決定을 要望한데對하야 「모로토푸」 氏는 「同提案에는 異議하지안으나 平和會議開催期日決定은 오직美、英、蘇、佛의外相條項에關한 重要問題의合議가 到達된後에야할것이라」고主張하고있다한다

韓國의臨時政府

李承晩著

金光洲譯

우리가가진最初의 政治文獻! 初版三萬部不日發賣!

四六判 九〇頁 臨時定價 拾圓

서울市壯稷町三一一의五〇 發行所 光昌 (電話坂下光化門九九)

總販賣所 朝鮮書籍都賣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一)

東西戰線의兩勇將

六年만에東京相逢

【東京十一日UP發】 맥아ㅡ더元帥는比律賓時代의舊友인 아이젠하우어元帥를 맛나게된것이다 맥아ㅡ더元帥가 比律賓軍再編成과 訓練의使命을 띠고 一九三五年當時中佐이든 아이젠하우어元帥는 比律賓에 파견되여 六年前 맥아ㅡ더元帥의 參謀로 있었다 그러다가 一九三九年當時中佐이든 아이젠하우어元帥는 比律賓에 파견되여 六年前 맥아ㅡ더元帥의 參謀로 있었다 그러다가

맥아ㅡ더元帥는 今日駐日 軍參謀部員들과 會議를하고 一日曜日第一騎兵師團의 閱兵을한다음 第八軍團長 아이젤버ㅡ커將軍의 안내로 日本 地區 視察할것이라한다 (合同上은 아元帥下는 맥元帥)

맥아ㅡ더元帥는比律賓에 感慨깊은 人事를한다 東西戰線에서 武勳이 燦々한 兩巨人은 맥元帥의 케데라크에 몸을실고 東京으로 돌어갓다

천수천경

▼牛踏不破로 傳하였던 것을 確信하였던 일이 意外에 빗그러젓다면▼깍짝 興奮 嘲笑에 落膽도하겟지만▼될성부른나무는 떡잎부터안다고 開會當時에 豫料한배와같은 美蘇共委의 休會에 새삼스레 驚目할것은없으나▼아수운 感覺에서 아수운마음으로 輕率결되엇스면하는 希望을 부칫든지라 또다시 續會를 바랄진대▼不可不、不老藥 「ACS」를 服用하야 一百五十歲로 壽命을延長待機하는 一方 虛列한防衛射擊 急先務요▼업질러진 물사발에 업질른者를 道路할들 快할배아니나 도적이라 매를 장오나 窓牢할노릇▼警告하지 아니해도 하잘것없는 厚祝을 하잘것없거나와 獨立에 利하지못한 일이면 우리가알아 하지 아니하지!

螺鈿漆器及食床專門 漆器者는電話又는 葉書하야주시압
極上品 生漆入荷
淡城市中區南大門通二丁目 洋行
二三一一
電話本局②一七二二・二九九番

旅客及貨物輸送

左記區間에 旅客貨物(手荷物)을運送하오니만히利用하시기를바랍니다

三十八度以南全海岸線
仁川(仁川港、濟州島、馬山、木浦港、麗水、濟州島、馬山、木浦港、注文津)間 往復
插項 三涉 定期
南鮮 仙堂 鎭島 所港 明川間 往復
中南鮮 仙堂 鎭島 所港 明川間 往復
貨物線 一往復
取扱所 京城府中區南大門通貳丁目登參番地 (日海빌딩二層)

朝鮮商船株式會社

電話本局二八七九 五八六〇
仁川市本町四丁目八番地
朝鮮商船株式會社仁川支店
電話 (仁川) 二一〇九

仁川市海岸町
朝鮮商船株式會社
電話 (仁川) 二八二

檀紀四二九九年五月十二日 (日曜日) 동아일보 (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十六年五月十二日 (日曜日) 東亞日報 (第三種郵便物認可) 發行所 東亞日報社 京城府 電話 光化門 一〇〇〇番 振替 京城 一〇〇〇番 定價 一箇月 金壹圓 (前金) 發行人 李相協 編輯人 李相協 印刷人 李相協 印刷